

조직의 특성이 개방형 혁신 수용을 통한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

서용모¹, 현병환^{2*}

¹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²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SMEs on Market Performance through the Acceptance of Open Innovation -Focused on Woman`s SMEs-

Yong-Mo Seo¹, Byung-Hwan Hyun^{2*}

¹Doctoral Course, Dep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조직의 특징과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한 내용이다. 기업의 조직의 문화를 이룬 특징은 바로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기업의 폐쇄적인 문화적 특징을 극복하고 기업가적 지향성, 권한위임, 조직문화의 개방성 및 R&D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은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의 특성은 외부자원에 대한 수용과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변인들은 결국 기업의 조직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방형 혁신과 외부자원의 수용도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기업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변인에 대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운영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실무적 태도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 기업을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적 한계에 대한 극복을 반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변인들을 적용하여 검증하려고 한다.

주제어 : 여성기업, 조직 특성, 개방형혁신, 기업지원제도, 성과

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e characteristics that make up the culture of a company's organization determine its success. Overcoming the company's closed cultur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elegation, opennes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R&D capabilit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company's performance.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also play a positive role in embracing open innovation to generate innovative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any positively consider the acceptance and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These variables proved that the nature of a company's organization is a factor in generating a company's performance. In this process, open innovation and the acceptance of external resources also proved to be a positive factor in generating corporate performance. The contents of this study provide an academic basis for the variables that build corporate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ovide a practical attitude to the role of leaders in managing corporate organizational culture. This study is focused on women's SMEs. In future research,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will be considered.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by applying various variables for generating performance of domestic SMEs by reflecting overcoming regional limitations.

Key Words : Women Enterpris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Open innovation, Government support system,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 Byung-Hwan Hyun(hyunvv@gmail.com)

Received October 15,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11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기술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시장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외적으로 시장 환경은 무서운 속도로 기업들의 혁신을 요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수많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어가는 불황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분체를 벗어나 개개인에게까지도 불확실성의 미래가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제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대상으로 여성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 기업들이 가진 섬세함, 창의적 사고, 감성적인 사고력 및 직관력 등의 능력은 여성 기업 등장과 창업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저 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잠재적 역량으로서 여성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여성 기업을 통한 고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기술혁신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요구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 창업가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이룩해 온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부합될 수 있게 부합하면서 여성 기업의 창업도 증가해 왔다[1]. 이들 여성의 창업영역도 지식 창조사회에서 주로 남성들의 시장으로만 여겨왔던 지식경영상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첨단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 까지 다양하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기존의 경영방식을 중심으로 한 경영방식은 기존의 시장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고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미흡하다. 기존의 경영조직에서는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보편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이 가진 조직의 문화가 결국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시장 환경의 위협을 감수하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가적 정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의 경영상황은 융복합 첨단 제품의 확산, 디지털 기반의 기술 집약적 제품,

제품의 수명주기 단축 그리고 다양한 지식의 원천들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조직에 의존하면서 자체적으로 기존 시장 및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개발 등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자원의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외부의 협력을 통해 기존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경쟁 환경의 제한을 극복하고 경쟁에서 요구되는 규모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개방형 혁신을 중요한 경영 전략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이처럼 보편적인 경영 전략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제품에 대한 수명주기가 짧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즉, 기업들은 짧아진 혁신 주기,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에 대한 비용의 천문학적 증가 등으로 인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자원부족 등의 원인으로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3].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4]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방형 혁신은 기업에게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개방형 혁신 기반과 네트워크 활동 등의 요인이 시장성과를 창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 인력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R&D혁신 방안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 및 확산과 산학연 역할분담 및 연구단계별 연구목적 차별화를 통해 성과 창출형 R&D 수행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요인들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분석한 내용들이 외부연계의 영향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어[6] 이에 대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선행요인별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직특성(organization characteristics)

조직문화의 의미는 각 조직이 나타내고 있는 개성을 표현하고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하여 조직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개개의 조직 구성원들을 동일한 방향으로 통합시키는 조직의 근본적인 이념과 가치관을 포함한다[7].

이러한 조직문화는 눈으로 보이는 조직구조 및 행동규칙, 복장 규정과 같은 기업의 가시적인 형태, 전략, 목표, 철학 등과 같은 조직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조직의 실체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의 세 가지 수준에서 조직으로 스며드는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가치로 형성된 문화, 성장전략, 통제시스템 등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8]. 이러한 조직문화는 결국 기업이 추구하는 성과에 대한 인식이나 매출 증대에 대한 목표 측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경쟁 환경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지속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9].

이러한 조직문화의 특성은 기업의 생존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기업이 지향성 정신은 조직 내부에서 한 사람이 독재적인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중앙집권화와 낮은 수준의 형식화를 보이는 개인중심의 조직으로 매우 권력지향적인 조직문화이다. 기업이 지향성 정신은 Schumpeter[10]가 기업이 정신에서 유래되어 기업의 열정이나 의지, 기업가의 능력, 산업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품과 시장의 혁신을 위해 최고 경영자가 위험수위를 간파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자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려는 조직의 성향이라고 하고 있다[11]. 다시 말해 기업이 지향성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기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12].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기업이 지향성은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13-17].

조직문화의 개방성은 개방형 혁신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8]. 국내연구에서는 조직문화 개방성이 개방형 혁신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19].

권한위임은 심리적인 분야에서 유래되어 조직의 내부적 모임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20,21]. 권한위임은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기위하여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서 일선 근무자들에게 메뉴얼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권한위임은 조직구성원들과 권한을 함께하는 것으로 본인 업무에 자신의 성향을 반영하여 내재적 과업 동기부여를 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22]. 이는 결국 내

부 구성원들이 자주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과 실행을 통해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잠재적 역량을 강화하여 결국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23].

R&D 활동은 해외 선진국 등에서 정부의 주도하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장비의 개발과 연구시설의 공용을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R&D 역량은 기술혁신역량의 대표적인 역량으로 인식되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24].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R&D 활동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자체적으로 주도가 되어 실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의 R&D활동은 그 자체가 기술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혁신의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R&D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한 조직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이는 결국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기술협력 활동이 많을수록 기술혁신의 촉발을 이끌어 낸다고 보이고 있다[25].

이처럼 기업의 조직의 문화에서 파생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 중에서 기업의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을 통해 기업의 조직적 특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2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모든 기업들과 조직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미비함, 시장에서의 짧은 혁신 주기, 신제품 경쟁 심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R&D 비용의 증가가 그들의 경영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들과 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내부 및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의 활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개방형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은 연구개발의 전주기 과정이 기업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기존의 폐쇄적 혁신(closed innovation) 시스템을 탈피하여 외부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내부의 지식과 기술을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지식가치를 창출하는 흐름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26].

Chesbrough[27]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 패러다임이 내부 R&D를 중요시하는 폐쇄형 혁신에서 지식 활용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성과로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다[19,28,29] 이러한 혁신의 성과에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30].

2.3 외부지원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하거나 R&D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혹은 사학연의 협력 관계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R&D 자원과 기술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등의 외부적 지원이나 외부자원 및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자신들의 처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R&D 투자비용을 절감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혁신의 방향과 속도를 대응할 수 있다[27,31,32].

Hagedoom & Schaknaad[33]은 기술협력 활동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소규모 프로젝트나 기술협력을 통한 대·중규모 프로젝트가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품개발에 투입되는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시장진입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결국 외부와의 협력관계는 기술혁신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

2.4 시장성과

기업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창출해내는 결과들은 결국 성과라고 하는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성과는 계량적으로 표현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지로 표현한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주관적인 성과지표의 형성이나 사용은 내부적 혹은 외부적 왜곡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고 산업요인에 의한 재무적 성과가 영향을 받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향상, 시장 내 경쟁력의 확보, 시장 점유율 자사의 만족도 증가 및 새로운 시장의 확보 등을 적용하였다.

3. 가설 설정 및 연구모형

3.1 가설의 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적 특성이 외부의 개방형 혁신에 의한 성과를 측정할 내용입니다. 특히 여성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조직문화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외적 요인으로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에 부합되는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특성과 개방형 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연구들[35-37]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직문화 특성과 개방형 혁신 활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38] 적용하였다. 조직 내부에서 개방형 혁신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만의 긍정적인 심리와 수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부적 특성은 결국 내부 직원 및 외부 고객에 대한 대응력과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조직 내부의 특성은 내부적 통합과 조직 혁신의 창출을 유도하며[39] 기존 시장 환경 혹은 내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요인이므로 다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도화 되는 시장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운영임을 강조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은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기업 내부 혹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조직 내부 혹은 다양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창출되는 혁신이다[27]. 다시 말해 개방형 혁신은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외부에서 아이디어와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적 지식의 폭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31].

이러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변수들을 추출하고 본 연구에 적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여성기업의 조직특성은 시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성기업의 조직특성은 개방형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여성기업의 조직적 특성은 외부자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여성기업의 외부자원은 개방형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여성기업의 외부 자원은 시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여성기업의 개방형 혁신은 시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와 가설로부터 아래의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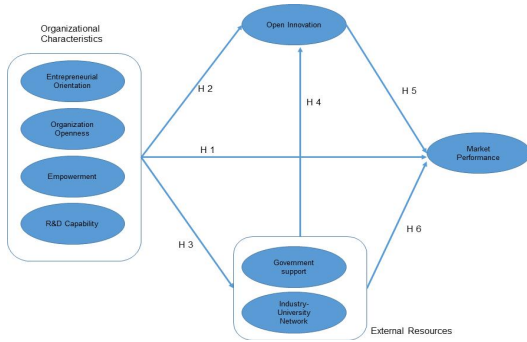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 실증 분석

4.1 연구결과의 분석

본 연구에 적용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여성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 기업들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부 소속의 여성 기업들과 협회 소속 타 지역 기업을 선정하였다. 각 지부 소속 여성 기업들은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과 면접의 기간은 2019년 8월 1일 부터 16일 까지 16일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으로는 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설문지는 100부 중 임원 및 대표가 아니거나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86부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 (N=86)

Variables	Contents	Status	
		N	%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20`s	2 2.3
		30`s	19 22.1
		40`s	34 39.5
		50`s	25 29.1
		60`s	4 4.7
		over 60	2 2.3
Characteristic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 3.5
		College	4 4.7
		University	49 57.0
		Graduate School(Master)	20 23.3
		Graduate School(Doctor)	10 11.6

Industrial Characteristics	Position	Staff	0 0.0
		Associate	0 0.0
		manager/Deputy Senior Manager	0 0.0
		Senior Manager	0 0.0
		Executives	0 0.0
		President	86 100.0
	year of Service	Under 1 year	7 8.1
		Under1~3 years	17 19.8
		Under 3~5 years	10 11.6
		Under 5~10 years	14 16.3
		Under 10~20 years	30 34.9
		Over 20 years	8 9.3
	Occupation	Office management	59 68.6
		Sales	1 1.2
		R&D	21 24.4
Technical job		5 5.8	
Others		0 0.0	
Industry	Bio, Food/Beverage, Medicine	15 17.4	
	Machine	6 7.0	
	Electrics/Electronics	13 15.1	
	Chemicals/Nono	4 4.7	
	Energy/Resource	7 8.1	
	Knowledge Service	25 29.1	
	Informatics/Communications	10 11.6	
Sales	Under 10 Billion	48 55.8	
	11~50 Billion	32 37.2	
	51~100 Billion	4 4.7	
	101~500 Billion	2 2.3	
Area	Seoul/Gyeonggi	6 7.0	
	Chungcung	79 91.9	
R&D Investment	Kangwon	1 1.2	
	Under 10%	49 57.0	
	11% ~ 20%	25 29.1	
	21% ~ 30%	8 9.3	
Size	Over 31%	4 4.7	
	Under 10 persons	62 72.1	
	11 ~ 30 persons	14 16.3	
	31 ~ 50 persons	4 4.7	
	51~ 100 persons	2 2.3	
Establishment year	101 ~ 300 persons	4 4.7	
	Under 5 years	39 45.3	
	6~10 years	20 23.3	
	11~20 years	20 23.3	
	Over 21 years	7 8.1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들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했으며, 1차로 전문가집단의 면접 및 인터뷰를 통해 설문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 중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의 내용은 Table 1에 지시된 바와 같이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나이분포는 20대가 2.3%, 30대가 22.1%, 40대가 39.5%, 50대가 29.1% 60대가 4.7% 및 60대 이상인 기업 대표가 2.3%였다. 기업의 분포는 바이오, 식품/음료, 의약분야가 17.4%, 기계분야가 7.0%, 전기 및 전자가 15.1%, 화학/나노분야가 4.7%, 에너지 및 자원분야가 8.1%, 지식서비스분야가 29.1%, 정보통신분야가 11.6% 및 기타 7.0%로 조사되었다.

4.2 연구결과의 분석

본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은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표본의 기술적 통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변수의 하위구성개념을 각 3개 이상의 복수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이용하여 표본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변수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위개념의 변수집단이 하나의 항목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항목별 상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Bartlett검정과 KMO 표본적합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제품성과와 시장성과를 비롯한 각 영향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결과에 적용된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값이 Table 2 모두 0.8이상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External Validities

Variables	Detail Variables	No. First Question	Questions after Oblique rations	α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6	4	.848
	Organization Openness	5	5	.883
	R&D Capability	6	6	.942
	Empowerment	9	6	.809
External Resources	Government Support	5	5	.887
	Industry-University	5	5	.900
	Open Innovation	10	9	.890
	Market Performance	6	6	.848
	sum	52	46	

본 검증에서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세부 변수 값이 0.6이하의 값을 제거하였다. 제거된 항목 총 6개를 제거하여 본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에 적용하였다.

또한 내적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요인들로 묶여지는지를 파악하고 묶여지지 않는 변수들을 제거하여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조직특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3, 기업의 외부자원에 대한 요인분석 Table 4 및 개방형 혁신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5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혁신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적재 값이 0.6이하, 공통성이 0.5인 변수 항목을 제거하여 적용하였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o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Final Questions	Measurement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Common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4	Ori 1	.783	.361	.090	.053	.755
		Ori 2	.843	.213	.103	.182	.800
		Ori 3	.805	-.032	.366	.049	.785
		Ori 5	.586	.341	.230	-.383	.659
Organizational Culture Openness	5	Open1	.135	.825	.028	.154	.723
		Open2	.194	.835	-.001	-.014	.735
		Open3	.055	.747	.061	.210	.609
		Open4	.100	.732	.227	.215	.644
		Open5	.101	.752	.238	.329	.740
R&D Capability	6	Capa1	.220	-.070	.887	.099	.841
		Capa2	.058	.023	.847	.225	.771
		Capa3	.219	.053	.895	-.027	.852
		Capa4	.068	-.008	.900	.246	.875
		Capa5	.140	.114	.808	.155	.709
		Capa6	.072	.144	.801	.050	.671
Empowerment	6	Emp 2	.334	.429	.212	.623	.614
		Emp 3	.175	.430	-.262	.612	.547
		Emp 6	-.077	-.110	.159	.834	.738
		Emp 7	.117	.176	.175	.731	.609
		Emp 8	.275	.306	-.217	.676	.674
		Emp 9	-.060	.075	.054	.706	.511
Eigen Value			7.099	3.275	2.583	1.907	
Coefficient(%)			33.806	15.593	12.299	9.083	
Cum Coefficient(%)			33.806	49.399	61.698	70.781	

*Kaiser Meyer Olkin(KMO)= 0.685 $p = 0.000$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or External Resources

Variables	Final Questions	Measurement Items	Factor 1	Factor 2	Commons
Government Support	5	Gov1	.803	.205	.687
		Gov2	.727	.242	.586
		Gov3	.807	.179	.684
		Gov4	.889	.081	.797
		Gov5	.819	.201	.712
Industry-University Network	5	Net1	.182	.705	.530
		Net2	.212	.882	.823
		Net3	.160	.844	.739
		Net4	.067	.909	.831
		Net5	.408	.757	.740
Eigen Value			5.106	2.022	
Coefficient(%)			51.062	20.217	
Cum efficient(%)			51.062	71.280	

*Kaiser Meyer Olkin(KMO)= 0.815 $p = 0.000$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or Open Innovation

Variables	Final Questions	Measurement Items	Factor 1	Factor2	Commons
Open Innovation	9	OI1	.652	-.003	.528
		OI3	.736	.455	.748
		OI4	.840	.082	.712
		OI5	.705	.574	.826
		OI6	.670	.491	.690
		OI7	.788	-.067	.626
		OI8	.646	-.555	.725
		OI9	.755	-.561	.837
		OI10	.770	-.434	.781
		Eigen Value			4.819
Coefficient(%)			53.543	17.240	
Cum efficient(%)			53.543	70.783	

*Kaiser Meyer Olkin(KMO)= 0.774, p= 0.000

4.4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결과에 적용된 요인들에 대한 연관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Table 6에 정리하였다.

만약 추정된 상관계수가 너무 높으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하여야 하며, 1에 가까우면 모형을 수용할 수가 없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값이 0.040~0.500수준으로 적합하였다.

4.5 가설의 검증

본 연구결과에 적용된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의 결과 t-value가 4.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영향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요리 적합도 지수를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모형에 대한 해석에 무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result for each factor

	MEAN / SD	Ori	Open	Empower	R&D	GS	Network	OI	MP
Entrepreneurial Orientation	3.31/.790	1							
Organization Openness	3.93/.687	.413** (.000)	1						
Empowerment	3.90/.482	.037 (.000)	.403** (.000)	1					
R&D Capability	3.47/.899	.426** (.000)	.323** (.002)	.247* (.022)	1				
Government Support	3.89/.715	.313** (.003)	.358** (.001)	.357** (.001)	.157 (.150)	1			
Industry-University Network	3.55/.701	.259* (.016)	.356** (.001)	.263* (.014)	.040 (.716)	.449** (.000)	1		
Open Innovation	3.49/.609	.459** (.000)	.500** (.000)	.190 (.080)	.473** (.000)	.271* (.012)	.444** (.000)	1	
Market Performance	3.55/.484	.349** (.000)	.430** (.000)	.414** (.000)	.240* (.026)	.432** (.000)	.306** (.004)	.473** (.000)	1

** p < 0.01, * p < 0.05

Table 7. Hypothesis test result

	Research Theory	df	Std.β	t-value	p-value	F-value	R2-value	Choice
H 1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 Market Performance	85	.487	5.115	.000	26.163	.228	Adoption
H 2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 Open innovation	85	.604	6.942	.000	48.194	.357	Adoption
H 3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 External Support	85	.412	4.143	.000	17.162	.170	Adoption
H 4	External Support → Open Innovation	85	.419	4.231	.000	17.900	.166	Adoption
H 5	External Support → Market Performance	85	.434	4.416	.000	19.503	.188	Adoption
H 6	Open Innovation → Market Performance	85	.473	4.927	.000	24.275	.215	Adoption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가설 검증을 위 모형분석 결과가 Table 7과 같다.

조직의 특성이 시장성과와의 관계를 보면 $\beta=.487(t=5.115)$ 로 분석되어 가설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특성과 개방형 혁신과의 관계는 $\beta=.604(t=6.942)$ 로 분석되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특성과 외부자원과의 관계에서는 $\beta=.412(t=4.143)$ 로 분석되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자원과 개방형 혁신과의 관계는 $\beta=.419(t=4.231)$ 로 분석되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자원과 시장성과와의 관계에서는 $\beta=.434(t=4.416)$ 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혁신과 시장성과와의 관계는 $\beta=.473(t=4.3927)$ 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특성이 시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부자원의 적극적 수용과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는 조직은 시장성과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5.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조직의 특성이 시장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개방형 혁신의 수용과 외부자원의 활용에 대한 수용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위협 속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개방형 혁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생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못했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기업이 정신의 발휘를 통한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기업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 문화가 그동안 남성 중심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많은 제한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의 창업이 증가하고 이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여성 기업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기업이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내부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하여 더 유연하고 덜 형식적이고 의사결정에 대한 신속성으로 외부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의 내용은 조직의 특성과 성과 창출과의 관계, 조직의 특성과 개방형 혁신의 수용, 조직의 특성과 외부자원의 활용, 외부자원의 활용과 개방형 혁신의 수용과의 관계, 외부자원의 활용이 시장성과와의 관계 및 개방형 혁신과 시장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특성의 세부 변수인 기업가 정신, 조직문화의 개방성, 권한위임 및 R&D 역량으로 구성된 내용은 기업의 내부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둘째, 조직의 특성이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셋째, 조직의 특성은 외주자원인 정부의 지원과 산학연 네트워크에 대한 연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넷째, 외부자원은 결국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업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자원은 시장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문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수용 그리고 외부자원 활용 전략이 성과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내부의 자원을 통해 다양한 시장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지만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고 그 지위도 많이 향상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기업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기업들의 생존력을 높이고 경쟁우

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인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는 첫째, 기업의 내부 조직의 특성과 시장성과에 대한 선행요인과 개방형 혁신과 외부자원의 활용을 매개효과로 검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증진시켰다. 기존의 시장 성과와 조직의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조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국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특성이 시장성과에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조직의 특성이 개방형 혁신에 대한 수용태도를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를 분석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내용들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직의 특성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조직의 특성이 외부자원의 활용과의 관계 대한 선행연구들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던 선행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넷째, 외부자원의 활용은 개방형 혁신의 수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개방형 혁신은 시장성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자원의 활용은 시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으로 개방형 혁신의 수용과 외부자원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조직의 특성이 이러한 변수들을 수용하는 것이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를 만들고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으로부터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할 것이다. 즉, 위협을 감수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와 조직원 간의 역량에 대한 신뢰와 개방성이 결국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지리적 제한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용된 기업의 지리적 입지는 대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우리의 결과가 국내의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여성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

를 실시하여 그 한계성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 다양한 혁신의 촉진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외부적 환경 요인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실증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실시하려고 한다. 또한 설문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장과 임원 간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밝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0). *Wives Who Earn More Than Their Husband*.
- [2] S. Brunswicker & V. V. Vrande. (2014), *Exploring Open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hesbrough, H., Vanhvaerbeke, W., West, J., *New Frontiers in Open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5-163
- [3] B. K. Cho & S. H. Kim. (2013), The impact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on new product develop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24(1), 1-23.
- [4] Y. H. Chiang & K. P. Hung(2010), Exploring Open Search Strategies and Perceived Innovation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R&D Management*, 40(3), 292-299.
- [5] E. D. Kim, H. B. Kim & K. S. Bae. (2015). Analysis on Determinant Affecting Open Innovation of Korean ICT Service Industry : Focusing on Network Service,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32(4), 175-192.
- [6] B. Y. Cho, K. J. Shin & K. T. Park.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Framework for Partner Relationships and Open Innovation Process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1(2), 47-69.
- [7] A. M. Pettigrew. (1979), On Studying Organizational Cultur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4), 570-581.
- [8] W. Ouchi. (1981), Theory Z: How American Business Can Meet the Japanese Challenge, *Business Horizons*, 24(6), 82-83.
- [9] T. E. Deal & A. A. Kennedy. (1982). *Corporate Cultures: The Rites and Rituals of Corporate Life*. Reading, MA: Addison-Wesley.
- [10] J. A. Schumpeter. (1934).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4th ed., Berlin Germany: Drucker and Humblo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1] D. Miller & P. H. Friesen.(1983), Strategy Making and Environment: The Third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 221-235.

- [12] A. Shapero & L. Soko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13] J. G. Covin & D. P. Slevin. (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 [14] R. C. Becherer & J. G. Maurer. (1997), Th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Entrepreneurial and Marketing Orientation of Entrepreneur-led Fir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2(1), 47-59.
- [15] G. T. Lumpkin & G. G. Dess. (2001).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 and Industry Life Cycle, *Science Direct*, 16(5), 429-451.
- [16] C. K. Lee & J. M. Pennings. (2001), Internal Capabilities, External Networks, and Performance: A Study of Technology-bases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615-640.
- [17] J. G. Covin, D. P. Slevin & T. J. Covin. (1990). Content and Performance of Growth-seeking Strategies: A Comparison of Small firms in High- and Low-technology Industr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6), 391-412.
- [18] J. Dabrowska & I. Savitskaya. (2014). When Culture Matters: Exploring the Open Innovation Paradigm,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Innovation and Research*, 8(1), 94-118.
- [19] C. S. An & Y. D. Lee. (2011).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Open Innovation Activ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4(3), 431-465.
- [20] Spreitzer. (1996). Soc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 483-504.
- [21] A. Locke, Edwin, David M. Schweiger. (1979).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 one more look,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 an annual series of analytical essays and critical reviews*, 1, 265-339.
- [22] G. A. Yukl. (2002). *Leadership in Organizations*. 5th Editi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 [23] K. M. Ryoo, H. J. Jung & J. S. Shin. (2013). Effect of Manager's Power Delegation on Service Agil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7(6), 175-186.
- [24] A. C. Eberhart, W. F. Maxwell & A. R. Siddique. (2004), An Examination of Long-term Abnormal Stock Returns and Operating Performance following R&D Increase, *The Journal of Finance*, 59(2), 623-650.
- [25] R. C. Yam, M. J. C. Guan, K. F. Pun & E. P. Y. Tang. (2004). An Audi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in Chinese Firms: Some Empirical Findings in Beijing, China, *Research Policy*, 33(8), 1123-1140.
- [26] D. K. Bok & W. H. Lee. (2006),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Ope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SERI.
- [27] H. Chesbroug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Technolog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mpany.
- [28] M. A. Mone, W. Mckinley & V. L. Barker. (1998). Organizational decline and innovation: a contingency frame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1), 115-132.
- [29] R. D. Hisrich & M. P. Peters. (1991). *On Your Own: How to Start, Develop and Manage a New Business*, Business One Irwin: Homewood.
- [30] M. S. Shin & S. E. Kim. (2012), The Effects of Financial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Firm Valu,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0(1), 45-74.
- [31] J. K. Shin & S. K. Whang. (2008), R&D Intensity and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SMEs : The Role of Cross Functional Cooperation and Industrial Cooperation Cultur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1(6), 2523-2548.
- [32] S. J. Chang & Y. S. Shin. (2008).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technology management capa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08(8), 1-25.
- [33] J. Hagedoorn & J. Schakenraad. (1994). The effect of strategic technology alliances on company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4), 291-309.
- [34] B. Y. Lee. (2014). An Empirical Study of the Impacts of Open Innovation of SMEs and HPE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7(6), 2483-2511.
- [35] V. de Vrande, J. De Jong, P. W. Vanhaverbeke & M. De Rochemont. (2009). Open innovation in SMEs: Trends, motives and management challenges. *Technovation*, 29(6), 423-437.
- [36] U. Lichtenthaler. (2011). Open innovation: Past research, curr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Th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5(1), 75-93.
- [37] R. Boschma. (2005), Proximity and innovation: a critical assessment. *Regional studies*, 39(1), 61-74.
- [38] M. M. Naqshbandi & S. Kaur. (2014), Do managerial ties support or stifle open innovation?.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14(4), 652-675
- [39] Y. K. Jung. (2016), Organizational culture type, open innovation and innovation performanc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6(8), 764-783.

서 용 모(Yong-Mo Seo)

[장학원]



- 2010년 10월 ~ 2015년 10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조빙교수
- 2016년 4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조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신제품 마케팅, 소비자행동,

디자인경영, 비즈니스 모델, 개방형혁신

· E-Mail : bluenight99@hanmail.net

현 병 환(Byung-Hwan Hyun)

[장학원]



- 2010년 2월 ~ 2018년 10월 :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기술정책학과 교수
- 2018년 11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술경영, 연구전략기획, 기술사업화

· E-Mail : bhhyun@dju.kr